

어느 날 새벽,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며,

“반장님! 반장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반지하 투룸에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카타리나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33년 전 1991년도 초여름의 일이다.

나는 충북 소이에서 태어나 소이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소에서 가끔씩 신부님과 수녀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마음에 이끌려 17살 때 세례를 받았다. 스물다섯 살에 남편과 관면혼배(寬免婚配)로 결혼하였다. 결혼 후 이듬해에 남편과 맨주먹으로 상경하였다. 남편은 목수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나는 도로가에 좌판을 설치하여 밤낮으로 일해서, 10여년 만에 서울 풍납동에 작은 구옥을 구입한 후 은행의 도움으로 3층으로 신축하였다. 3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고 반지하 및 1, 2층은 전세로 임대하였다.

풍납동 성당에서 우리 구역의 반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큰아이는 학생 레지오 단원으로 또 작은 아이는 복사로 활동하였다. 당시 풍납동 성당을 신축 중이라 교우들이 몇 년간 박스를 수집하여 팔았다. 창피한 줄도, 어려운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총이라 생각된다. 남편이 생업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하느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반지하 투룸에는 아이 둘을 둔 카타리나 내외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형제님은 건축 현장에서 일했는데, 자매님이 시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카타리나와는 반찬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친언니와 동생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그러나 카타리나 시아버지는 약주를 너무 좋아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카타리나의 시아버지는 시장통에서 약주를 드시고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 싸우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 신세도 신세같이 못 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쳤다. 종종 카타리나의 요청으로 연탄집과 쌀집 가게에서 리어카를 빌려 정신을 잃고 헤롱헤롱하는 카타리나 시아버지를 모셔 오기도 했다. 한 번은 리어카에서 오줌을 싸서 이웃들 보기가 창피하여 카타리나가 요청하는 도움을 피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카타리나 내외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기특하고 애처롭기도 하여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코 12,31)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때리고 또 같은 성당 교우라 내몰라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초여름 어느 날 카타리나의 시아버지께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카타리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급하게 내려가 보니, 두 부부가 어쩔 줄 모르고 문밖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다. 나도 그때 서른일곱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당의 구역 반장이라고 용기를 내어 가쁜 숨을 내어 쉬는 할아버지를 안고 임종을 지켰다. 경험이 없어 그저 '주님의 기도'만 바쳤다. 20여 분쯤 후에 임종하셨다. 노환으로 바짝 마른 모습이지만 고단한 삶을 마감해서인지 임종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편하게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대세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당시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젊은 카타리나 내외는 장례식을 치른 경험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였다. 할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려고 보니 반지하 투룸은 너무 좁았다.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많지도 않았고 비용도 고가여서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통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집 앞 골목에 풍납동 성당 차일(遮日)을 치고 조문객을 받았다.

카타리나 내외의 형편이 너무 딱하고 같은 성당 교우이기도 하여 남편과 상의하고 아이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에 기꺼이 3층 우리 집을 내어주고, 우리 가족은 옥상 한 칸 자리 옥탑방을 사용하였다. 우리 집은 지방에서 오는 조문객이 사용하였다. 본당에 연락하여 시설분과에서는 차일과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고,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과 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조문하고 상주들을 위로해 주었다. 위령회에서는 장례를 주관하고 장지까지 함께하였다. 고인이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교우같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의 마지막까지 나의 일 같이 도움을 드렸다.

길고 긴 삼 일간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르고 3층 우리 집으로 들어가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입이 딱 벌어졌다. 주방의 각종 양념, 커피, 설탕은 모두 동이 났고 아끼던 스텐 냄비는 늘어붙고 접시들은 타고 술병과 담배꽂초는 집안 곳곳에 굴러다녔다. 밤새워 마신 술과 담배 냄새로 온 집이 찌들었다. 치우고 쓸고 닦는데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렀다.

그래도 카타리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그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더 야위어 쓰러질 듯한 모습의 카타리아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장례를 잘 치른 것만 해도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생각하며 나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다. 나는 “저의 행위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였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쁜 상황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었다.

그 후 1년 뒤에 나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집주변 초등학교 옆에 분식집을 개업하였다. 카타리나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먼저 살던 옆집 문영이 할머니가 가게로 와서 다리가 아파 쉬어 가겠노라고 하였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문영이 할머니는 내가 성당 다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성당에는 왜 가느냐며 핀잔

을 주기도 했다. 성당의 교우들이 “요셉피나!” 라고 부르니 이름을 줄여 “요셉!”하고 부르던 할머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내가 요셉이었다. 의자를 내어드리고 물을 대접하니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시며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라!” 하셨다. 어리둥절하여 사연을 물었다. 할머니 말씀은 지난번 카타리나 시아버지 장례 치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성당에 갔단다. 성당에 가면 교우들이 저렇게 도와주려나 생각했단다.

문영이네 할머니와 할머니의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 둘 합쳐 다섯 가족이 세례받았단다. 아들은 전례부 부원, 며느리는 레지오 마리아 행동단원으로 활동하며, 손녀 둘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레지오 마리아 협조단원으로 등록하고 또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젊은 새댁이 세입자에게 잘 대하고 세입자 장례식까지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다. 할머니 남편도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반에 등록하였단다. 내가 죽으면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천당에 가게 되었으니 여한이 없단다. 천주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하신다. 나도 덩달아 웃었지만 나보다 본당 교우들이 더 고생했다. 감사한 일이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서른일곱 젊은 아줌마가 대견한 일을 한 것 같다. 누군가가 상갓집은 ‘전교의 텃밭’이라고 했다.

그다음 해에 나의 남편도 바쁜 일정에 통신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카타리나의 남편인 미카엘 형제님이 대부를 자청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3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

죽음은 가족과 지인들이 슬프고 힘든 고통을 느끼며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때가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망자를 좋은 곳으로 편안히 보내어 드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분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갖게 한다. 바다에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상가(喪家) 돌봄은 예비자를 낚아 올릴 수 있는 좋은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한다. 쉬는 교우들은 마음을 돌려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칠 남매 모두 그 지역의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현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직은 직장 생활로 본당 활동에 충실하지 못하지만 일을 놓게 되면 레지오 마리아와 위령회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가능한 황금 어장 주변에서 지낼 생각이다. “뿌리가 깊어 흔들림 없이 꿈적하지 않은 당신을 따라 나도 천당 갈란다.” 하는 남편의 말을 되뇌며 오늘도 하느님 품속에서 기쁘게 살아간다.